

모든 中企에 크라우드 펀딩 기회 열린다

앞으로 창업 기업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투자인원업자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투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 서울성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크라우드 펀딩 가능 기업의 범위가 '모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창업 7년이내→모든 중소로 확대

자본운용시장 활성화·투자자보호

든 중소기업'으로 확장된다. 덕분에 중소기업의 자금 모집이 수월해져 성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 중개업자들은 펀딩 종료 후 발행 기업에 대해 사후 경영자문을 할 수 있다. 또

한 입지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과도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창업 투자회사들은 창업·벤처 사업 펀드(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투자인원업자가 투자문업에 보다 수월히 진입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앞으로 투자인원업자로 등록한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투자자보호 규제는 강화된다. 펀드매니저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를 할 경우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하거나 외국 펀드가 해지·해산될 경우 펀드가 의무적으로 등록 취소된다.

뉴스스



삼시세끼 라면만 먹는 할아버지로 화제를 모았던 박병구(91)씨가 안성탕면을 즐기는 모습.

'삼시세끼 라면만'...농심, 91세 할아버지에 선물 전달

제 농심의 설명이다.

농심은 1994년 당시 이장의 제보로 박씨의 소식을 듣게 됐고 건강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안성탕면을 무상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 이후로 농심이 제공한 안성탕면은 총 90여 번스에 달한다.

농심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난 3일 박씨 집을 방문해 건강을 기원하는 선물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심은 라면만 먹고 지낸다는 박씨의 소식이 1994년 세상에 알려진 뒤 지금까지 26년째 안성탕면을 무상 제공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TV광고의 누적효과를 매출 신장의 요인으로 꼽았다.

또 휴테크측은 그간 확보한 고객들의 입소문도 환영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회사가 3~4월 직영점에서 '매장 방문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 추천을 통한 방문'이 1위를 차지했다.

휴테크 관계자는

"매년 1월과 5월이 매출 경쟁을 벌이는데, 이번 내부 회의에서는 이달 매출이 1월을 앞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지난 1월 송출된 TV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마케팅 효과가 이달 즐음에 거시화됐을 것이라는 설명이 자체적"이라고 설명했다.

안마의자

를 텐트 상품으로 확보하고 있는 텐트업체들도 소폭 특수를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는

"이달 초부터 연휴 전까지 안마의자를 비롯한 공기청정기·전기레인지 등 '건강가전'에 대한 문의가 평소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교원그룹의 건강가전 브랜드 교원웰스(Wells)도 4월 말부터 안마의자의 텐트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7000억원을 넘긴

안마의자 시장은 이미 안정기에 도달해 충분한 소비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앞으로는 기능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씨는 여전히 라면을 먹어본 뒤 농심 소고기 라면을 선택해 삼시세끼 고집했고 이후 '해파리면', '안성탕면' 등으로 주식을 이어나갔다. 박씨가 안성탕면을 언제부터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안성탕면이 1983년 출시됐고 해파리면이 1990년대 초반에 단종된 점 등에 비춰보면 적어도 30년 이상 안성탕면만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스

"육아휴직 사용하는 기업 절반도 안돼"

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며 인구 절벽이 가까워오고 있다. '일 가정 양립' 과제를 위한 치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출산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꼽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71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8.9%였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div